



濟州地域에서의 造景植栽工事의 經驗的 考察(2)

An Empirical Considera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re Plant Transplantation Construction in CheJu Area

李 大 雨*
Lee, Dae Woo

IV. 主要 移植樹種 特性

앞서 언급한 조경수종 중 제주도 내 각종 조경공사에서 비교적 移植頻도가 높은 수종의 특

성과 이식상 유의점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학술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보다는 오히려 經驗的 事實에 보다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음이 대부분이다.

가) 상 록

수 종	특 성	비 고
해송(곰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박지에도 강하고 해풍에도 강한 上木처리용 · R10~15가 이식이 무난하며, 충실한 수형을 얻기 위해서는 설계 규격을 R(근경)로 하도록 함. · 전정을 거의 하지 않으려면 해빙전인 2~3월에 이식함이 효과적이며, 이식 후 발생한 새순이나 솔방울은 2/3정도 따주도록 함. · 솜뭉치전정을 실시하고 수간의 2/3정도는 피복하여 이식 후 몸살을 예방토록 함(다른 수종도 비슷히 함) · 가급적 원래의 向에 맞추고 순이 곧바로 되도록 식재하며, 분을 크게 뜨도록 함. · 식재 후 지주를 철저히 해 흔들림이 없도록 함. · 배수로를 따주고 분의 습도를 파악한 뒤 관수 실시 	해안변 군락/풍치/독립/경관수용
소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 요령은 해송과 동일함. · 주변 경관을 고려해 독립수가 아니라면 무리지어 뉘우거나 기울게 심는 것이 효과적임(환경생태적 식재) · 잎이 시든 굴취목이 식재 후 몸살을 앓으며 꼭지의 순이 구부린 채 고개를 떨구는 것은 고사의 우려가 높음.(소나무의 정절지조를 엿볼 수 있음) · 물을 아주 싫어함으로 배수불량여부를 필히 관찰토록 함. · R20 이상은 이식이 비교적 까다로우므로 주의를 요함. 	군락/독립/경관용
편 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관형이 아름다우며 淺根性으로 습한 곳과 부식토질에 이식 가능하고 솜뭉치 전정 실시 · 황금편백은 넓은 잎이 너불거리고 잎 끝이 노라며 활착이 까다로움. · 공작편백은 활착이 용이함. 	정형수/수벽차폐용

* 都市計劃·造景 技術士, 東一技術公社 專務理事

수 종	특 성	비 고
삼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근성으로 생육정지기인 동절기에 색이 갈변하였다가 봄에 녹색으로 변함(숙이목임) · 능선을 따라 정상 부근으로 배식하여 성장을 유도함(일본의 대표적 수종) · 중/대목은 이식이 곤란하며, 토심이 좋고 반그늘 양토에서 활착이 가능함. · 고사의 주된 원인은 배수불량, 뿌리 흔들림, 깊게 묻어 심은 경우에 나타남. 	사방조림/방풍/경계용
청/홍 가시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대한 수형을 가지며 耐燥性이 강함. · 회녹색 수피가 가을에 갈색으로 변함. · 이식 시 강전정 실시(개가시나무도 비슷) 	정원수/생울타리/방풍림용
태 산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이 크고 광택이 있으며 잎 뒷면은 다갈색으로 수형이 고음. · 弱耐乾性으로 건조지를 싫어하므로 반그늘지에 식재하되, 이식 시 전정과 함께 순과 꽃봉오리를 따주도록 함. 	기념/경관/조경수
나 한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好光性이며 음습지에도 강하고 해풍/해수에도 강함. · 친근성으로 물을 많이 요구하며, 이식이 잘되고 고사지도 별로 없으나 강전정실시(중목이상은 주의요함) · 열매는 홍색과육에 녹색종자가 붙어 있고, 봄에 자른 가지로 삼수도 가능한 일본의 정원수종 	방풍/경관수
녹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2m미만은 무난하다고 하나 제법 이식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수종으로 뿌리돌림을 해놓은 것이 유리함.(후박, 생달, 까마귀쪽, 참식, 먼나무, 굴거리 등도 비슷함) · 맹아력이 좋아 성장속도가 빠르므로 이식 시 강전정을 실시하고 분을 크게 떠 비옥사질양토에 식재함 	정원/공원/녹음수
후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에 광택이 있고 수형이 미려하며 흑회색 수피가 향기롭고 열매가 아름다운 芳香性 수목(열매와 수피는 약용) · 성장속도가 빠르고 내조성이 강하며 비옥사질양토에 식재토록 함. · R8이하는 이식이 까다로우나 대목은 오히려 수월함. · 미세하고 성정이 예민하며 급하기 때문에 이식 후 잎이 떨어지면 괜찮으나 잎이 처지면 1주일 내로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시 강전정을 실시토록 함. · 2~3월, 5~7월, 10월이 적절한 이식 시기로 새 순난 가지는 모두 전정하고 잎을 훑어 주며 이식토록 함. · 가지에 흑불(흑병)이 생길 우려가 있음. 	정원/경관수
조 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그늘이나 비옥사질양토를 좋아하고 고지에도 적응하며 이식이 강한 수목으로 뿌리와 수관의 형상이 특이함. · 토질이 좋으면 1년에 1m정도 성장하며, 자생수종 중 목질의 무게가 제일 무거운 수종임. · 잎에 여드름나는 것과 같은 기생성충이 번지기도 하고 흑갈색 나방이 집이 군데군데 달리기도 함. 	녹음/경관/방풍/산울타리/가로수
생달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이 둥글둥글하고 목대가 연약한 수목으로서 속성수이며, 잡귀를 쫓는 나무로 인식되어 팽나무 등과 같이 묘역 주변에 식재되기도 함. · 이식시 강전정을 실시하며 분을 크게 떠 식재함. 	경관/녹음수
구실잣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자생수종으로 생장력이 좋으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됨. 	녹음/경관/가로

수 종	특 성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심이 깊은 토양을 좋아하며 건조지나 바람이 강한 곳에는 이식이 힘들. · 병해에 약해 빗자루 병에 걸리면 3년이내에 고사할 우려가 있음 	수
굴거리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이 넓고 두터우며 연못가 수림 속에 어울리고 바람이 없는 다습지에 이식함. · 후박 비슷한 외양과 잎 끝의 붉은 색이 늘어지면서 퍼짐. 	정원/경관수
먼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지역에만 자생하며 광택이 나고 붉은 열매가 빼어남. · 비옥사질양토에 이식하며 충분한 관수를 요함. 	경관/가로수
담 팔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귀 수종으로 천연기념물임. · 광택이 있으며 가을 단풍이 빼어남. · 이식은 보통으로 약다습지에 식재하고 슈음전정 실시 · 수액이동이 활발함으로 굼벵이/매미에 의한 뿌리 침식, 수피 피해 등이 집중됨(돈나무, 구실잣밤도 비슷) 	경관수
동 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에 생육하는 난대림의 대표 수종으로 잎에 광택이 있고 수형이 미려하며 겨울의 홍색꽃이 빼어남. · 잔 뿌리가 별로 없어 이식이 비교적 까다로운 수목으로 R10미만은 실패 가능성이 높으며, 다습지에 견디므로 충분 관수를 요함. · 활착 기간이 수년 걸리고 간인으로 슈음 전정을 해주며(2~3cm 굵기의 가지는 1/2정도) 잎과 꽃도 반정도는 따줌. · 한번이라도 뿌리돌림해 놓은 것이 이식에 유리하며 3~4월이 적절함.(사상까, 접동백, 차나무 등도 비슷) 	경관수/가로수/ 경계용(사상까, 접동백 등)
참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자생 속성수로 후박 외형과 비슷하고 붉은 열매가 빼어남. · 분을 크게 뜨고 약강전정 실시하며 반그늘지에 식재하고 보통 관수토록 함. 	정원/조경수
후피향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이 미려하며 광택이 있고 열매와 작은 가지가 붉고 특이하며 중심목이나 하목으로 사용 · 접질토가 섞인 받 흙에 식재하고 보통관수 실시 · 왜, 담팔수와 잎이 비슷하나 크기가 차이남. 	정원수/소군락식재
아왜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변 산야에 자생하며 잎이 두껍고 광택이 나고 가을 빼어난 열매가 열매가 빼어남. · 이식 활착이 까다로와 3년 정도가 소요되며 약강전정 실시 	해안방풍/방화용/ 녹음/경관/생울타리
비자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濕地를 좋아하며 회갈색 수피의 陰樹(주목은 적갈색, 구상은 회백색 수피) · 1~2월 이식이 적당하나 6월 중 이식한 수목은 순따기와 전정을 실시해 옆으로 퍼지게 함. 	정원/조경수
눈 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아력이 강하고 枝葉이 밀생하며 비옥사질양토를 좋아함. · 이식 시 중강전정 실시하며 관수는 보통으로 실시 	암석원/하목식재용
옥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록색의 인엽이 매혹적이며 기하학적 정원에 열식으로 이용 · 이식 시 모양다듬기와 슈음 전정 실시 	경계/지표/공간구획용
눈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복성이 있어 흥미있는 조경기법활용의 소재 · 이식 시 약강전정/슈음전정 실시하고 원하는 형상을 얻기 위해 가지를 집개로 지면에 고착함. 	비탈면군식/침경수
남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월에 피는 꽃과 잎이 미려하며 가을의 단풍과 이른 봄까지의 홍색 열매가 고움 · 맹아력이 강하므로 4월초 이식이 가장 적기이고 상부 약전정 실시해 반 그늘지에 식재 	정원/경계/관상/군식

수 종	특 성	비 고
까 마 귀 쪽 나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아력이 약하고 뿌리 발육이 더더 이식이 어려운 수종이나 대목은 오히려 이식이 수월 · 음산한 분위기를 주는 수목으로 해수, 해풍에는 강하나 병해에 약함 (흑주머니병 발생) · 반그늘 다습지에 4월 중 이식이 적기 	해변가군식 / 독립수
하 꿀 (夏蜜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에 결실된 열매를 이듬해 여름에 식용하거나 향미원료로 이용하는 제주 민가에 흔한 조경수 · 호광성이나 직사광선에 약해 피양병에 잘 걸리고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오그라들어 2년 지나 고사우려 있음. · 바람 안받는 곳에 식재하고 속음 전정을 3~50% 실시하며 방풍수벽을 치거나 과실수, 화관목 등을 식재해 방풍함. · 내한성에도 약하므로 수고 2/3까지는 새끼 피복을 하고 밑둥에는 보리짚이나 억새로 멀칭함. · 열매와 뿌리에 수분이 상호 이동하는 수목이므로 5월초까지는 이식이 무난하며 이식시 열매를 따고 강전정 실시하여 충분관수 실시함. (조꿀 : 온주밀감, 금감 : 평강도 비숫) 	과수/정원수/경관보강군식
우 목 사스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에 자생하는 미려한 수형으로 잎은 도란형이며 호생함(사스레피는 곧게 뻗고 열색도 좋음) · 이식이 까다로와 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4월초 이식이 적기이며 海水를 받는 곳에 식재 · 파리가 잘 끼고 냄새가 고약해 정원수로는 부적절 	해안변의 독립수/법면군식/생울타리 조성용
돈 나 무 (섬음나무, 海桐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성 반원형의 수형을 가지며, 봄에 피는 꽃향기나 광택나는 엷은 녹색 잎 그리고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하는 가을의 열매가 빼어나. · 이식이 까다로우며 분을 크게 뜨고 끝을 중강전정하며 열매를 가급적 따주면서 4월중순~5월 초순 사이에 이식 · 천근성으로 이식 후 그을음 병이나 진딧물 등 병해 방지에 유의토록 함(수액이동이 활발함) 	정원 / 조경수 / 군식 / 관상 / 생울타리용
협 죽 도 (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에 피는 도홍색의 꽃이 남국의 정취를 강하게 해주는 수목으로, 활착육이 높고 외가지로도 키울 수 있음. · 봄에 꽃가루 피해가 있고 잎에 독성이 있는 수종으로 가축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경계수로도 이용 · 이식 시기는 무난하나 5월말~6월초가 적기이고, 속음 전정 실시 	해안변 군식/가로수용
피라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에 맺는 홍황색의 열매가 겨우내내 아름다움을 주는 수종으로 진홍색 열매가 순종임. · 맹아력이 강하여 1년에 1m씩 성장하므로 언제든 이식 시 수고의 2/5정도 강전정 실시하되 4월초 중순사이가 이식 최적기임. 	경계 / 수백 / 울타리용
호 랑 가시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택있는 짙은 녹색의 잎과 늦가을의 붉은 열매가 인상적이고 가시가 있음.(크리스마스 트리용) · 이식 시 약전정하고 저습도를 유지토록 함. 	정원수 / 경계 / 생울타리용
다정큼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에 특이한 광택이 있고 3~5월에 피는 방향성 백색 꽃이 일품이며 수형 또한 미려함. · 눈향 전정하듯 윗가지들만 전정해 분을 크게 뜨고 반그늘지에 식재하며, 이식 시기는 대체로 무난함. 	정원 / 해안 조경수 (군식)
금 목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의 백등색 꽃과 향기가 짙은 방향성 수종 · 이식시 약강전정 실시하고 반그늘지에 식재하며 충분관수 	정원수 / 군식 / 생울타리용

수 종	특 성	비 고
꽃 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성 수종으로 여름철에 피는 순백색꽃의 향기가 빼어나며, 가을의 주홍색 열매는 식용색소와 약용으로 쓰임. · 이식 절기 무난하나 약한 습지에 강전정하며 식재 · 매연과 공해에 약하며, 서양에서는 애인에게만 선사하는 나무 	관상 / 생울타리용 / 하층식재용
회 양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절기 무난하며 생명력이 왕성한 수종으로 원하는 대로 수형조절이 가능하며 상부전정 실시 	경계 / 정형 / 하목 / 생울타리용
사철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조성과 생명력이 강하며 가을 열매도 아름답음. · 언제든 이식 시 위를 강전정하고 밀속유 전정을 실시해 通氣, 通光이 잘되도록 함. · 잎이 작은 탐사철, 황금사철도 비슷 	생울타리 / 경계 / 하목용 / 정형군식
팡팡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아력이 강하여 수형조절(Topary)도 가능한 수종 · 이식 시 강전정 실시하고 반 그늘지에 식재 	생울타리 / 경계 / 하목용 / 정형군식
제주광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둥근잎 광나무, 상록 쥐똥으로도 현지에서 불리고 있음. · 속성수로서 반 상록이며, 해수/돌풍/내한성이 강해 토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나 토양석분이 많은 곳에서는 힘이 든다. · 이식 시 主枝를 밑둥에서 5~60cm 정도 남기고 강전정하며 中枝를 50% 정도 간인해 亞主枝가 형성되도록 하며 2~3년 지나 수형을 잡도록 함(2년정도 지나면 잎이 밀생됨) · 반그늘 다습지를 택하고 관수를 자주해 줌 · 열매는 한방재로 쓰임 	생울타리 / 경계수 벽용
황칠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도서 지방 자생 수종으로 내한성에는 약하나 내음/내조성에는 강함. · 기이한 잎과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수형은 이질적이며 노란 수액은 고급 도료로 쓰임 · 비옥사질양토에 식재하나 이식이 까다롭고, 동백/후박/사스레피 등과 혼식 	해변경관수 / 녹음
팔 손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록색의 강한 광택이 나는 掌狀葉이 특징적이고 남국적 정취를 강하게 주고 있음. · 봄에 새 순을 아니 본다면 이식 절기가 상관없으나 4월초에 이식 후 새 순을 따고 이듬해 새 순을 받는 것이 효과적(무화과, 통달목 등도 비슷) · 맹아력이 왕성하며 반그늘 다습지에 식재함. · 거제도의 천연기념물임. 	연못변 하목 / 군식 / 침경수
자 금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음성이 강해 반그늘 다습지를 좋아하며 가을 열매가 관상가치임. · 이식은 무난한 편이며, 백량금, 천리향, 백리향 등도 비슷 	화단군식 / 대목하층식재용
맹 종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 줄기 직경이 20cm, 높이가 10여m 이상 크는 수종으로 양지바른 곳에 식재하고 충분 관수 실시 · 분을 크게 뜨고 이식하며 倒死 방지를 위한 지주를 철저히 하도록 함. · 맹아력이 비교적 강해 主幹이 고사해도 새순이 돌아남(이대도 비슷함) 	정원 / 연못가 군식
제주조릿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자생종으로 한라산 수림 밑에 생육하는 관목상의 대나무 · 4월말~5월초에 이식(m²당 11장정도 식재)하며 상부 약전정 실시하고 충분 관수 실시 	연못변 군식 / 하층식재 / 切斜面 피복용

나) 낙엽

수종	특성	비고
자귀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철의 분홍색 꽃과 尾毛狀의 잎 그리고 자연스러운 수형이 일품인 향토 수종으로 合歡木이라고도 함. 이식 시기만 제대로 맞추면 잔뿌리가 거의 없어 그냥 심는다 해도 활착이 가능한 생명력이 모진 나무 병솔나무, 마로니에, 칠엽수 등도 비슷 	독립/경관/절개/지의 침경수
팽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부해안, 도서지방에 자생하는 향토수종 비옥사질양토나 비교적 건조한 토양에서도 생육가능하고 순나기 전이나 늦가을에 이식하며 분을 크게 뜨고 약강전정 실시함.(느티나무도 비슷) 	당간수/조경/녹음/독립수
왕벚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벚나무 중 꽃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며 단풍도 좋음. 잎과 동시에 개화하며 사질양토에 식재하고 약강전정 실시(4~5월 사이에 왕벚-산벚-결벚-능수벚 순으로 개화) 순나기 전과 늦가을에 이식하고 분을 크게 뜬. 제주의 지리적 조건으로 개화기간이 짧은 것이 흠. 	경관/침경/독립/가로수
멀구슬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해/병해/내염에 강한 속성수로 6월의 보라색 꽃과 가을의 황색 열매가 일품임. (열매는 장식, 해열, 이뇨, 구충제로 이용됨) 상징적 동물인 해태가 잎을 즐겨먹었다는 전설이 있음. 오동나무 비슷하게 속이 비어있어 절단면은 상처 치료제를 바르도록 함. 가지가 잘 부러지고 활착이 까다로운 수종으로 대목보다는 중목정도를 이식하고, 이식 시 강전정해 이듬해 새순을 받도록 함. 	당간수/녹음/가로수/조경수
청단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형 및 수피가 아름답고 가을 단풍이 빼어난 우리 특산 수종 이식이 무난하고 비옥사질양토에 식재하며 약전정 실시 군데 군데 홍단풍, 복자기 등을 첨식하면 효과적 	정원/공원/경관수
목백일홍 (배롱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기가 미려하고 늦여름의 꽃이 100일간이나 지속되는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 호광성 양수로 부식질이 풍부한 비옥사질양토에 식재하며 이식이 무난한 나무이나 진딧물, 백분병의 피해가 빈발함. 약강전정 실시하며 보통 관수 	정원/공원/독립수
감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根莖과 열매를 관상하며 이식 시 약강전정 실시 비교적 척박한 토양에서도 견디며 완숙퇴비로 시비 자연석 몇 점과 함께 식재하면 운치가 돋음 	정원/공원/독립/가로수/꽃꽂이소재
수양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수형이 아름다우며 습기성 비옥사질 양토에 식재하고 이식시 강전정 실시 갯버들, 뚝버들도 비슷하나 봄의 꽃가루 피해가 있음. 	연못변 군식/침경/정원/공원/가로수
산딸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十字型의 백색 꽃과 단풍이 특수한 종교적인 수종으로 松林의 하층 수목으로 뛰어남. 해수/해풍에 약하므로 해안가는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4월초/중순 사이에 이식하도록 함. 전정과는 무관하나 새 순나고 이식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즐기 피복과 순 따기를 꼭 실시토록 함. 	경관/補景樹

수 종	특 성	비 고
매죽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백일홍과 수목 특성이 비슷하고 백색꽃이 수려한 여성적인 수종임. · 싹 틈때 이식이 가능하기는 하나 3월 중순~4월 초순이 가장 적기이며, 강전정 실시하고 2/3정도 수피 피복함. · 새 순 돋을 시는 80% 정도 순을 훑어 줌. · 팔배나무와 같이 공해에 강한 수종임. 	정원/공원수/군식
통 달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육이 빠르고 잎이 장대하며 남국적 향취를 돋구는 하목으로 가치가 높음. · 單幹이며 필손이 잎과 비슷하고, 반그늘 다습지에 식재함. · 이식 시 강전정하며 잎을 모두 훑어 주고 충분 관수함. 	연못변 침경수 군식
고광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늦은 봄에 피는 야성적인 느낌의 백색꽃과 싱싱한 줄기가 인상적인 수종으로 차폐를 요하는 곳에 주로 식재(열매는 식용함) · 이식 시기 무난하며, 이식 시 강전정 실시하고 비옥 사질양토에 식재 	관상/경계/차폐/수벽용
아 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密原植物로 방향이 뻗어난 속성수 · 맹아력이 뛰어나 이식 시 강전정 실시 	해안변 척박지 녹지피복용
황 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의 가지가 초본성이며 개화기간이 길고 꽃색이 백색, 도색 등 다양함. · 투명한 색상의 꽃과 섬세한 잎새가 인상적이며 생명력이 강인함. · 순나기 전인 4월초~5월초가 이식 적기이고, 외곽 전정 실시함. · 무궁화, 부용 등도 비슷 	보경/생울타리/군식
수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바닥 크기의 잎과 다복스러운 꽃송이가 탐스러움(꽃색이 토성에 따라 연록-청남-백·홍색으로 변함) · 산수국, 목수국, 불두화, 백당목 등도 비슷 	담가나 잔디밭의 한 구석에 군식
해 당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내염성이 있어 해안변에 군생하는 수종으로 진한 자홍색의 꽃과 향기, 가을 열매가 뛰어나. · 호습성 식물이므로 척박토양에서는 이식이 불가능하고 4월 초순이 이식 최적기임. · R3~5되는 것을 밑 등에서 3~50cm정도 남기고 강전정 실시하면 맹아력이 뛰어나 2~3년 후면 수형이 회복됨. · 발근촉진처리를 하고 수시 관수 실시토록 함. · 당뇨에 좋다는 속설로 품절 위기에 있음. 	해안조경 군식/절개지 피복용
쨍 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화와 이식 특성이 비슷하며 장미 代木으로 이용됨(백색꽃무더기가 이색적임) · 장미도 비슷하며 화색이 다양함. 	돌담가에 군식
탱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의 代木用으로 봄의 백색 꽃과 가을의 열매가 아름다우며 가시가 있음. · 생명력이 강하며 내버려 두어도 성장함. · Port에 식재하여 4월초 이식이 무난하고, 성장목은 이식 시 강전정 실시 	경계/생울타리
황 매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에 피는 황색꽃이 아름답고 개화기간이 길어 관상가치가 높으며 가을 단풍이 곱음. · 이식은 무난하며 백색꽃이 피는 옥매도 비슷 	침경수
댕강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이 일일초와 비슷하고 줄기에 6조목이 생김 · 4월중순~5월에 이식하며 강전정 실시하고 m²당 8주정도로 소밀식재함(H 0.5, W 0.5) 	경계/군식

수 종	특 성	비 고
제주참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 절기 무관하며 약강전정 실시하고 일반 토지에서도 활착가능함. · 연녹색 잎과 연분홍색 꽃의 자태는 옷매무새를 정갈히 차린 한국적 여인을 연상케 함. 	관상/군식
채 진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자생 수종으로 4~5월에 방향성 순백색꽃이 피고 자홍색 열매는 식용함. · 내한성/대기오염에 강하고 일반 토지에서도 활착가능하며, 맹아력이 뛰어나 이식 시 약강전정 실시 	관상/첨경/군식
석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한성이 약하고 해풍에 강해 해변가 비옥사질양토에 식재 · 꽃과 열매가 아름답고 열매는 식용/약용함. · 3~4월이 이식 적기하고, 이식 시 약강전정 실시 	정원/관상수
히 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도서 지방 자생 특산 수종으로 철쭉, 진달래 등과 혼식하면 운치가 돋음. · 내한성/내진성에 강하고 이른 봄에 이삭처럼 피는 꽃과 가을의 황금색 단풍이 수려해 신선감을 주고 있음. · 양지의 비옥사질양토에 식재하고, 이식에 강하므로 약전정 실시 	정원/공원/군식
철 쪽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 절기 무관하며, 이식시 약강전정 실시하고 비료섞어 경운해 지면에서 5~7cm 정도 돌아 심는 한편 흙을 충분히 채운 뒤 논물고이듯 충분 관수토록 함.(개화 전에 이식 하고 개화 1~2개월 후 약전정 실시) · 아제리아 - 홍황철쪽 - 아까도 - 히라도(백철쪽) - 사스끼철쪽 순으로 3末~6初까지 개화함. · 홍황철쪽은 잎이 진녹색이며 잎표면에 거친 솜털이 많고 가지는 갈색인데 귀하고 이식이 까다롭다.(잎뒷면 무늬는 거의 원형) · 백철쪽은 연녹색 잎에 연갈색가지이며 잎표면의 솜털이 거의 없이 매끄러움(잎뒷면 무늬는 타원형) · 진달래류와 석암 등도 이식 특성이 비슷함. · 아까도(0.5×0.5)m²당 8주, 영산홍(0.3×0.4)m²당 15주, 철쪽(1.5×1.0)m²당 2주, 석암(0.3×0.3)m²당 25주~30주 식재 	공원/법면 군락용으로 집단미가 효과적

다) 열대/ 만경/ 화본류

수 종	특 성	비 고
인디비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幹으로 성장하며 옆으로 새순이 나오지 않음(드라샤·인디비샤는 옆으로 새순이 나옴) · 자랄수록 바람에 의한 도복피해가 예상되므로 아주 바람이 강한 곳은 피하도록 함. · 이식 절기 무관하나 4월말~5월중순 이식이 무난하며 主根이 나올 때까지 굴취해 역피라미드형으로 분을 뜸 	해안변 경관용/군식
유 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한성/내조성은 강하나 습지에는 약함. · 양지바른 일반토양에 적응하고 4~5월 이식이 무난함. · 힘차게 뻗는 6~7월의 미백색 꽃이 수려함. 	군식/암반주변 침식

당 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을 관상하는 식물(파초도 비슷)로 이식이 용이하며 내염성에 강하고 양지에 식재해 충분 관수 실시 · 4~6월에 이식이 무난하며 맹아력이 약해 분을 크게 뜨고 약간 잎을 따줌(야자류는 거의 비슷) 	정원/공원/독립/경관/가로수
워싱턴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국적 향취를 주는 대관엽수종으로 원추형 외대입. · 척박지, 바람, 추위에 강하며 반그늘지에 식재 · 1년에 0.5m정도 성장해 최고 4~50m까지도 자람. · 어릴 때 피해를 받으면 더디 성장하고, 뿌리가 중간에서 나오다 난장이형이 된 것은 노목으로서 잎이 갈라지며 벗겨지고 뿌리가 나오다 고사할 우려가 있어 중간 뿌리 나온 부분까지 성토해 관리토록 함. · 지면에서 원추형으로 자라야 정상인데 난장이형이 되는 것은 밀식이나 악조건에서 자란 것들을 이식하면서 뿌리가 부식된 채 自家生育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임. · 잎 끝의 영양상태가 불량하다 하여 차광망으로 씌워 놓는경우 새순이 콩나물처럼 자랄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함. · 대목의 워싱턴야자의 주변에는 소목 워싱턴야자를 點植하거나 군식으로 처리해 소철, 종려, 카나리아, 코크스, 자연석 등으로 補景 	정원/공원/경관/가로수
카나리아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줄기가 물결처럼 곡선으로 처지며, 잎병이 조금 가늘게 되어 있음(첸차 야자와 비슷) · 흉고 60cm 높이 5~10m정도 성장하며 해수, 해풍을 받으면 잎이 하얗게 되고 도로 점유를 곤란함. 	경관/보경수
코크스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엽이 가늘고 V자형으로 성장 · H 2.5 내외의 것은 90% 활착 가능하고 해수, 바람에 강함. 	경관/보경수
남오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기는 적갈색으로 당굴성이며 9월의 홍적색열매가 아름답음.(열매는 식용, 강장, 진해제) · 이식 무난하며 배수가 양호한 일반토지에 식재 	정원/보경수
덩굴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기가 강직하고 매년 신가지가 발생 · 이식시 강전정 실시하고 병해방제에 신경을 쏟 	생울타리/아치용
송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음성식물로 남해 도서 지방 溪流邊에 자생 · 위로 휘감아 오르는 성질이 없이 옆으로 기는 특성이 있음. · 뿌리 마디를 묻어 식재하고 활착 시까지 보습력 유지를 위해 관수 후 비닐 피복 처리함(마삭줄, 아이비도 비슷) 	하목지피용 암반/담벽/고목/파고라 등 피복용
줄사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대지방 자생 수종으로 맹아력이 강하고 내한/내음/내조/내공해성에 강함. · 이식 시 강전정 실시하고 보통 관수함(인동덩굴도 비슷) 	황폐지/切土斜面/돌담 피복/정원
문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토기섬 자생 상록 다년초 · 다비성 식물로 배수가 양호하고 通氣가 되는 해변 모래땅에 식재후 충분 관수 	정원/공원/군식
용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줄기성 다육식물로 10년 이상 되어야 개화하며 개화 후 母株는 고사함. · 일반 토지에도 활착되며 직사광선에 재배하고 건조 기후라 해도 적정 관수 실시(알로에도 비슷) 	정원/공원/군식

II. 맺음말

제주도처럼 바다와 산으로 위요되어 독특한

水平的 自然景觀을 연출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저밀도 토지이용, 저층 건물군의 조성, 완만한

스카이·라인의 형성 등이 중요한 조경의 지침이 된다.

다만, 수평적 경관이 갖는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적인 시각 분절과 결절을 위한 포인트 설정도 혹은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어느 경우든 지나친 인공성은 排除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綠의 資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연과의 지나친 경쟁」을 탈피하고 「自然과의 同化·順應」을 통해 특유의 투박/소박/순박/정갈/깔끔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조경의 가다를 잡아야 잡아야 한다.

상록색상이 主調를 이루는 제주도의 경관처리에 있어서는 시설물의 외관이나 형태, 색상은 물론 인문/자연/문화환경 특성 등을 예의 검토해 개발유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수종의 선택도 생태적 조건을 고려해 기호성 수종에 편중되기 보다는 다양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도에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무형의 멋과 맛」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익숙해진 것 같아 별것이 아닌 듯 느껴지는 멋과 맛이 외국인에게는 별것이 됨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일찍이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한 피테의 지적은 깊이 새겨볼 만하다.

국제화/개방화도 기실은 한국적인 것의 한국화가 선행될 때 경쟁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국제화/개방화는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다.

인위적인 현대적 시설의 나열 보다는 자연과 접하고 그곳의 풍토와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01년까지 7兆 원을 투자해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겠다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이 의결됨으로서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붐을 맞이하게 되었다.

허나 반갑다기 보다는 걱정스러움이 솔직히

뒤따르고 있다. 개발이 주는 잇점이 아무리 우선한다고는 하여도 10건의 개발보다는 1~2건이라도 분별있는 개발이 제주도를 더 풍요롭게 하리라는 생각이 앞서는 소이도 전술한 우리의 멋과 맛의 소중함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재가 좋고 설계가 기능적으로 빼어나다 해도 자연환경 속에서 배어나오는 개발이 되어야지 자연환경 따로 개발 따로 노는 꼬락서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남의 것과 차이나는 내 것에 우선 가치를 두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보루적 의미를 안고 있는 곳이 제주도이다.

흐름이 다소 빛나간 듯 하나 조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風土條件를 적절히 활용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에 있어서도 조경소재로 흔히 통용되는 것이 자연석과 수목이다.

제주산 자연석은 거의가 화살폭발로 인해 형성된 흑암갈색 재질의 용암으로서 크기나 형태가 불규칙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配石에 있어서는 어느 일정한 面이나 向을 기준하는 일반적 기본원칙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노릇이기는 하나 다만 奇怪形象이라는 점이 配植과 함께 독특한 경관연출에 한몫을 하고 있다.

게다가 물허벅진 여인, 해녀, 동물, 한 쌍의 하르방, 방사(돌탑) 등의 石材造形物을 주변 분위기를 고려하여 것들이면 훌륭할 듯 싶다.

造景配植의 경우 生態的 條件과 特性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이나 공원, 공공조경에서는 고유 향토수종의 배식, 자연석, 조각물, 분수, 연못 등이 가급적 기존 지형을 살려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로조경에 있어서는 구간별 특색있는 가로수종의 선정, 초화류의 적정 군식, 주변 야생림의 알맞은 間引 그리고 방치에 가까이 나열된 자연석의 매듭처리가 필요하겠다.

해상조경의 경우는 임의적인 경관 창출보다는 海水와 海風 등 악조건에 강하고 海景에 어울리는 수종의 선택과 奇怪石의 添石 그리고

眺望의 強調와 景觀의 補完으로 나뉠대로의 해상경관이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골프장이나 관광휴양지 조경에 있어서도 기존 식재군은 최대한 활용하되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사계절 특성이 강조되며 공간별 특성이 유지되도록 함과 아울러 淸靜한 水景의 첨가로 새로운 景觀體驗을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모든 工事進行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구석 구석 세밀하게 신경을 써 부실/하자의 정도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겠다.

끝으로 拙稿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역개발본부의 金大根, 정구학 님과 녹장원의 李光燮 님께 지면을 빌어 謝意를 표한다.

◇ Page 45에서 계속 ◇

11. 류기승, 권성우(1989) : “발포폴리스티렌(EPS) 공법을 이용한 농도의 새로운 기초처리”, 농공기술, 6-4, pp. 156-160.
12. 通口靖明(1990) : “發泡スチロール盛土工法”, 基礎工, 18-12, pp. 10-20.
13. 류기승(1991) : “발포폴리스티렌(EPS)에 의한 성토의설계”, 대한토질공학회지, 7-2, pp. 83-86.
14. 홍성완(1994) : “EPS의 공학적 특성”, 발포폴리

스티렌(EPS) 이용 성토공법 국제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지반공학회, pp. 53-80.

15. M. Abe(1994) : “일본의 EPS공법 설계 및 시공”, 발포폴리스티렌(EPS) 이용 성토공법 국제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지반공학회, pp. 125-138.
16. 發泡スチロール土工法開發機構 編 : “發泡スチロール土工法”, 發泡スチロール土工法開發機構, 東京